

獨逸의 國民教育과 民族性

安 炳 茂

〈한국 神學大 教授〉

제가 가끔 독일에 갑니다만 이번에는 일년 반 만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72년과 73년 사이에 걸쳐서 독일에 가서는 이른바 문화쇼크를 느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즉 일년 반 전에 독일을 보았을 때는 윤리적인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독일은 이제 완전히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갔을 때는 또다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지난번만해도 1963년 시작된 학생운동—일종의 폭력적인 운동—이 아직도 여기저기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은 언제 있었느냐 싶게 각 대학마다 조용히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기존질서는 한동안 파도가 좀 이는 듯 했지만 그것은 아랑곳없이 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한국을 멀

리 놓고 비교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독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은 친구들과 라인강에 갔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결국 라인강의 냄새입니다. 우리 청계천 물 같은 것인데 놀란 것은 여기에는 생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즉 20세기가 지어낸 인간의 결과중의 하나인 死江입니다. 강은 죽었습니다. 死河입니다. 그래서 청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공장을 없애기 전에는 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오염문제 이것은 우리 아직도 남의 집 물구경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실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라인강에 물고기가 살고 식수로 쓸 수 있게 할려면 모든 공장을 문닫는 길 밖에 없는데 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생산해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결국 인간은 전체

인류라는 종족이 없어질 지 모른다는 위기를 알면서도 인간의 습성——즉 소비성——이 그것을 저지할 수 없도록 인간이 약화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에게서 배울점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자꾸 소비합니다. 이 소비습성을 위해서 그들은 설새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소비성 사회의 노예가 된 셈입니다. 독일인들은 미국이 너무 소비를 하고 사치를 한다고 욕을 합니다만 내가 보기엔 독일인들이 버리는 물건들을 우리 한국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도둑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의 소비성을 충족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세계 인류를 위해 가난한 나라를 위해 돕겠다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주목할 것은 젊은 학생들의 저항운동인데 1968년 이래의 학생운동과 그후의 소위 반문화운동은 굉장한 여파를 일으켜 아직도 그것이 여러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사람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 자기의 발판을 삼았다는 생각을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들이 증오하는 기성세대가 벌여놓은 것을 발판으로 출발하라 하는 생각입니다. 부자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유산은 절대로

안받는다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의 윤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힘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24세까지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쓸 때는 차용증서를 쓰고 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을 해서라도 자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의 재산은 공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한국에서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무슨 무슨 소리 하지만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한국의 부패상은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것 때문에 보석을 사고 도둑질을 하고 권력을 전부 동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욕은 잘하면서도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먹겠다는 그런 치사한 생각은 제발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산은 절대 안받는다라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벌리면 한국의 부패상도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에게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정신적인 고갈, 내적 빈곤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새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좀 이색적인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것을하고 싶어하고 기존 가치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 비록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제도를 따르면서도 속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 때

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
 통은 여전히 이겼고 이기고 있다는 인
 상을 받으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
 떻게 끝끝내 이런 전통을 유지할 수
 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답
 은 한말로 독일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일민족
 은 참 부럽습니다. 어떤 힘으로 그들은
 주체성에 있어서 아무리 옆으로 갔다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나
 는 그것을 교육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철전팔기할 수 있는 민족성
 을 지닌 것은 교육제도 때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도란 올바른
 세계관 위에 형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한국은 정신적인 새로운 철학은 없이
 제도만 자주 뜯어고치는데 병이 있습
 니다. 제도란 그렇게 쉽게 뜯어고쳐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어떤 철학
 적인 배경을 갖고 그위에 형성된 제
 도여야 합니다.

독일의 교육에는 두가지 기본 지붕
 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독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장신적인 교육
 으로서 종교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학교가 9년
 인데 9년동안 누구도 예외없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졸업할 때 기독교 교육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사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구성에 있
 어서 기독교는 켈 수 없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 냄새가 전

혀 안나지만 기독교 정신이 모든 일
 반사회 속에 침투되어 있어 기독교정
 신을 구현하는 데 정진하고 있기 때
 문에 역시 인간형성에 있어 기독교는
 지금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
 술교육입니다. 이 기술교육에 대해
 말하기 전에 독일 민족성에 대해 잠
 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독일민족은 개
 개인 만나면 대수롭지 않은데 모이면
 무서운 힘을 냅니다. 그들의 기술교
 육에는 라얼링시스템이란 기술 전수
 방법으로 전문 기술자가 있어 그 밑
 에서 일을 하며 배우는 제도가 있습
 니다. 이것이 독일 국민성을 만들고
 독일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독일 민족성을 이

야기 하면 하이덱거의 말 대로 두가
 지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
 민성과 또 다른 것은 군인기질입니다.
 즉 농민의 소박성과 군인의 규율성을
 합한 것 이것이 독일민족성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독일민
 족의 여러면에서 농민성과 군인 기질
 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가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룬
 트릿히 타입입니다. 구룬트라는 말
 은 그라운드(ground)라는 말로서 뿌
 리에서 부터 시작한다. 근본에서 부
 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기
 본 바탕 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들에게는 대충, 얼렁뚱땅이라는 게 없
 습니다. 끝까지 파고 들어 근원을 캐

내고 맙니다. 근본을 찾아 냅니다.

두번째는 자하릿히타입 입니다. 이것은 만 수작하지않고 하고자 하는 일 자체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무 베는 일이 할 일이면 다른 일 말고 나무 베는 일만 하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담당할 일만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이 올드니히—— 질서입니다. 질서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정치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네 처럼 문란한데 비해 독일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룬트릿히 타입, 자하릿히 타입, 올드니히라는 세가지 독일 민족성을 기본 초점으로 독일의 교육제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독일은 국민학교가 9년인데 이것을 둘로 나눠 4년까지를 구룬트 슐레라고 해서 이 4년을 갖점으로 잡습니다. 여 4년간 공부하는 철저합니다. 그리고 4년을 마칠 때 자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로 진출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은 선생님과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자가 돼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집나치움이라는데 들어갑니다. 집나치움은 9년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아이는 학자가 못되겠다 하면 예하르트 슐레라는

데 보냅니다. 이곳은 6년제 입니다. 그다음에 이아이는 그럴 필요도 없다 하면 숙련공을 만듭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4년 마치고 나머지 5년을 계속하는 합트 슐레에 다닙니다. 합트 슐레까지 합해서 국민학교가 9년 입니다. 이렇게 9년을 마치고 나면 모두 숙련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련공으로 나가는 숫자가 반이상의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의 교육열을 비극적으로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집나치움——에 들어가면 9년 과정중 4년은 거의 비슷하게 배우지만 4년 후에는 세살대로 나뉘어 집니다. 철학이나 신학과 같은 정신과학을 공부할 사람과 사회과학을 공부할 사람및 자연과학을 할 사람으로 나뉘어 각각 그에 대한 기본 학문을 5년씩 공부하게 됩니다.

한편 예하르트 슐레 6년은 학문적인 것은 체념하고 구체적인 상식을 배운 후 6년을 마치면 직업학교를 거쳐서 직업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다수가 가고 있는 기술교육입니다. 국민학교 9년이 끝나면 모두가 각 공장에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기능분과대로 각 공장에 소칠에 맞추어 보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숙련공을 가르칠 스승인 마이스터가 있어 그들밑에 제자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꼭 암탉이 병아리를 물고 다니다듯 하면서 기술을 가르치

는데 철두철미합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3년간 교육을 받으면 국가에서 행하는 시험을 거쳐 여기 합격해야 비로소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민족은 보기에는 허술해도 숙련공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그 훈련공이 시험에 불합격되면 마이스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합격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기본적인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철저한 관찰해라, 그다음에 사고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른데 적용시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자기 손으로 행하고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에나 적용이 되는 교육철학입니다. 이렇게 3년간의 훈련을 받고 나면 18세가 되어 성인이 되는 동시에 직업인으로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립적으로 무엇을 할려면 계속 공부해서 25세 이후 시험을 치루어 합격하면 비로소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스터가 되어야만 자기 밑에 제자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능공 교육을 이렇게 마이스터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도시마다 직업학교가 있어 고용주들은 훈련공을 이 학교에 보내어 기술문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기나 타이프등의 공통과목과 정신교육으로서의 인간교육및 이론교육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독일국민이 탄생하는 것입니

다. 그들은 모두가 다 숙련공이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서도 곧 일어나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 자리를 알고 제 할 일을 하고 쓸데없는 데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두가 모든 일에 일가견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지요, 모든 일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술교육, 기술교육하지만 우리대학은 미국의 대학제도를 그대로 끌어들이 사치한 공민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정말 알찬 국민을 길러야겠는데 이것은 대학 졸업장 가지고 허영에 찬 고등 룸펜만 자꾸 기르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유란 구라파에서 나온 말인데 독일에는 학생감옥이 있습니다. 즉 대학의 자유는 학생감옥이 심볼로 나타나 있지요. 무슨 말이나 하면 대학생은 절대로 경찰이 손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인범도 대학영내에 들어오면 경찰은 그 밖에 스톱하고 맙니다. 그리고 학생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학생회의 재판위원회가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거기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학은 이렇게 절대 자율능력을 가진 동시에 밖에서는 절대 간섭을 못합니다.

한국의 대학과 비교해 볼 때 벌써 개년부터가 다릅니다. 독일의 대학은

절대로 직업훈련은 안시킵니다. 따라서 졸업장이 없습니다. 학문에 졸업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이 주는 것은 박사학위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박사학위는 직업을 얻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학문적인 증명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학은 공부만 시킵니다. 이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제도가 되어있느냐 하면 가령 변호사가 되고싶다면 국가와 연결이 돼있는 변호사협회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변호사 시험을 칠려면 가령 무슨 무슨 과목이 몇학점 세미나를 몇학점 무엇을 얼마를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러한 강의를 듣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 자체는 그것을 위해

서 있는 것이지 기술 무엇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대학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자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다, 리포트니 출석체크는 전혀 없습니다. 대학은 이러해야 합니다.

끝으로 독일사람과 한국사람을 비교해보면 독일사람은 중추신경은 발달했으나 말초신경이 부더서 우둔해보이고 한국사람은 중추신경은 없고 말초신경만 발달해서 맛에 민감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민족의 구름트렛히, 자하릿히, 올드니히를 생각하며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974. 9. 20. 762회 강좌에서)

